

함경도 서사무가 <대감굿>에 나타난 죽음의 두 층위와 제의적 의미*

신호림**

— <차 례> —

1. 논의의 전제
2. 온전치 못한 죽음과 復讎의 서사
3. 죽음의 불순함과 희생
4. <대감굿>의 제의적 의미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함경도의 서사무가 <대감굿>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서사에 내재된 죽음의 두 층위를 살펴보았다. <대감굿>을 연행하는 ‘대감굿’ 거리는 본래 망목굿의 제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목굿 안에서 망자를 천도하기보다 ‘조상’을 모시고 위무하는 제차로 기능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감굿>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사적 층위와 연행적 층위가 접합되는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대감굿>의 제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대감굿>의 서사를 살펴보면, 서사를 추동하는 ‘결핍’은 짐미련의 온전치 못한 죽음이다. 두만강을 기준으로 <대감굿>의 공간은 이곳/저곳으로, 더 나아가 삶/죽음, 온전함/온전치 않음, 子/父로 분절되어 있으며, 짐달언은 분절된 공간의 경계를 횡단하여 짐미련의 시신을 수습함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수함과 동시에, 부친의 온전치 못한 죽음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짐달언에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게 죽음의 불순함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짐달언의 자결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짐달언은 스스로 죽음으로써 죽음의 해로움을 온 몸으로 떠안고 사라진 일종의 자발적 희생양이다. 짐달언의 자기희생신화를 통해 짐미련에 대한 해원이 아무 탈 없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감굿>의 서사적 층위와 연행적 층위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짐달언의 복수담은 대감굿을 올려 조상을 위무함으로써 아무 탈 없이 대감신을 모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의적 논리를 서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경도의 문화지리적 특성은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조상이 많다는 점, 대감신을 조상과 관련된 신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대감굿>은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 전에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조상을 위로하고 대감신으로 모시기 위한 무가로서 죽음을 다루는 신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감굿, 함경도, 서사무가, 조상, 죽음, 전염, 희생, 망목굿

1. 논의의 전제

본고는 함경도의 서사무가 <대감굿>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대감굿>은 ‘대감굿’ 제차(祭次)에서 연행되는 함경도의 서사무가 중 하나이지만, 그 연행 맥락을 따져보면 상당히 독특한 면모를 지닌 작품이다. 보통 함경도에서 대규모의 무속의례를 망목굿(새남굿)이라고 하며,¹⁾ 현재까지 조사·채록된 서사무가도 망목굿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

1)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굿-』(한국의 굿 8), 열화당, 1985, 78쪽.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 무녀 지금섬(池金織)에 의하면 함경도의 굿은 병굿, 재수굿, 망목이굿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북청 지역에서는 망목이굿을 새남굿이라고도 부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장주근, 『무속신앙』,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2(함경남·북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97쪽.

의 대상으로 삼은 <대감굿>은 망목굿 외의 굿에서도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무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난해한 지점이 있다. <대감굿>이 연행되는 제의적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텍스트를 독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경도 망목굿의 거리 구성은 15거리,²⁾ 21거리,³⁾ 22거리⁴⁾ 등 조금씩 다르게 알려져 있다. 이때 ‘대감굿’ 거리는 1981년 12월 서울 봉천동에서 임석재가 조사한 자료에서만 발견된다. 1965년 제출된 임석재·장주근의 조사에서는 <대감굿>이 ‘기타’의 무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1966년 이고분(李高粉) 무녀를 조사한 김태곤의 자료를 보면 ‘대감굿’은 망목굿이 아닌 ‘채수굿’의 한 거리로 되어있다.

물론, 이고분 무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김태

-
- 2) ‘1.不淨-2.토세굿-3.成主굿-4.門열이 千手-5.請陪-6.앉은굿-7.왕당千手-8.同甲쟁기-9.타성풀이-10.도량祝願(김가재굿)-11.옥이풀이-12.山川 굿-13.삼자내기-14.돈전풀이-15.뒷전놀이.’ (장주근(1981), 위의 논문, 98~99쪽)
 ‘1.지적굿-2.성주굿-3.門열이千手-4.타승-5.치원대 양산복-6.충열굿-7.동갑적계-8.궁상이굿-9.七公主굿-10.도량선비-11.진가장굿-12.왕달千手-13.상시과-14.중니가름-15.마당도리.’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80, 71쪽)
- 3) ‘1.부정풀이-2.토세굿-3.성주 알림-4.문 열어 千手-5.청배 굿-6.앉인 굿-7.타성풀이-8.왕당 千手-9.화청-10.동갑 쟁기-11.도량 축연-12.짐 가제 굿-13.오기풀이-14.山川 굿-15.문 굿-16.돈전 풀이-17.(중이 같음)-18.상시관 놀이-19.(동이 부침)-20.천디 굿-21.하직 千手.’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13~14쪽.)
- 4) ‘1.부정풀이-2.토세굿-3.성주굿-4.문열이 천수(千手)-5.청배굿-6.앉인굿-7.타성풀이-8.왕당천수-9.신선굿-10.대감굿-11.화청-12.동갑쟁기-13.도량축원-14.김가재굿-15.오기풀이-16.산천굿-17.문굿-18.돈전풀이-19.상시관놀이-20.동이부침-21.천디굿-22.하직천수!’ 임석재(1985), 앞의 논문, 78~89쪽. 망목굿을 22거리로 소개한 임석재의 견해는 이후 박전렬과 전경욱에게 수용되었다. (박전렬, 『북청의 무속의례 『새납굿』, 『북청군지(개정증보판)』,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94, 425~431쪽;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31~140쪽, 밑줄 및 강조는 필자.)

곤의 언급을 고려한다면,⁵⁾ 대감굿이 재수굿의 한 거리라는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천굿’이 있다. 산천굿은 김태곤 외의 연구자들이 모두 망목굿의 한 거리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고 분이 제보한 함경도 재수굿의 제차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⁶⁾

그러나 대감굿의 경우, 김태곤 외의 연구자들도 각기 다른 정보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대감굿’에서 불리는 <대감굿>을 ‘기타의 무가’로 분류한 임석재·장주근의 조사보고서를 다시 살펴보자. 임석재·장주근은 함경도의 무가를 ‘ㄱ.망목이 굿’, ‘ㄴ.其他的 巫歌’, ‘ㄷ.巫經(鬼明절)’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⁷⁾ 기타의 무가에는 ‘神仙 굿, 성주 굿, 대감 굿, 간지 풀이, 요사 굿, 센 풀이, 살령 굿’과 같은 무가가 속해있으며, 대감굿에는 “祖上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리고 ‘관북 무가보유자명단(關北巫歌保有者名單)’에 있는 강춘옥(姜春玉), 지금섬(池金纖), 김복순(金福順)이 보유한 무가 목록을 봐도 “망목이 굿에 관한 巫歌 一切” 외에 <신선굿>, <조상굿>, <대감굿>, <간지풀이>, <성주 굿>, <요사굿>, <센풀이>, <혼쉬굿>, <재리굿>, <살령굿>을 열거하고 있어서 1965년 조사 당시에는 대감굿이 망목굿의 한 제차가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대감굿이 재수굿의 거리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감굿은 1981년 임석재의 조사에서부터 망목굿의 한 거리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감굿 외에도 신선굿이 추가되어 있으며, 1965년 망목굿의 3번째 거리인 ‘성주 알림’ 대신 1981년에는 ‘성주굿’이 들어가 있다. 1965년에 ‘기타의 무가’로 분류되었던 세 무가가 1981년에는 망목굿

5) 김태곤의 조사환경에 대해서는 김태곤(1980), 앞의 책, 70~72쪽 참고

6) 필자도 이런 이유로 <산천굿> 무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망목굿’의 맥락에서 이해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호림, 『산천굿 무가사설의 구성적 특징과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무속학』 28, 한국무속학회, 2014 참고.

7)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10~11쪽.

의 무가로 편입된 것이다. 본래 망목굿의 제차나 무가가 아닌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굿거리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대감굿을 포함한 신선굿과 성주굿이 채수굿과 망목굿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제의적 기능을 담당함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편입된 제차와 무가의 위치 및 기능을 살펴보면, 신선굿과 대감굿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굿판을 정화하고 다양한 신들을 굿판에 모셔오는 거리의 끝에 신선굿과 대감굿이 위치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두 거리에서 모시는 신들이 모두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1981년 조사 자료에서 신선굿과 대감굿 거리는 ‘왕당천수’와 ‘화청’ 사이에 있다. 왕당천수는 불경인 천수경(千手經)을 읽으며 여러 신들이 좌정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화청’은 망자의 저승길이 평탄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거리이다.⁸⁾ 화청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망자를 위해 “전생 질”을 닦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그 이전까지 굿판의 부정음 제거하고(부정풀이) 토주신과 성주신을 위한 다음(토세굿, 성주굿)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저승의 문을 열고(문열이 천수) 신들을 청배하는 것(청배굿)이다. 여러 신들이 내려왔을 때 특히 지신(地神)을 위무하는 서사무가 <안택굿>이 연행되고(앉인굿)¹⁰⁾ ‘왕당천수-신선굿-대감굿’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신선굿과 대감굿에도 여러 신들을 모시지만, 신선굿은 “祖上굿, 성주굿과 같이 하는 것”, 대감굿은 “祖上을 위로하는 것¹¹⁾”으로 알려져

8) 임석재(1985), 앞의 논문, 80~81쪽.

9) <천디굿>에서는 ‘지정 질’, ‘성조 질’, ‘토세 질’을 닦음으로써 이른바 “인생 질”을 다 닦아내고, 이후 “오기 질”, “선간 질”, “산천 질”, “돈전 질”, “장봉 질” 등 “전생 질”을 닦는다. (<천디굿(또는 배송)>,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02~203쪽.)

10) <안택굿>에 대해서는 신호림,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화연구』 43, 우리문화회, 2014 참고.

있다. 차례차례 신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자리에 ‘조상’이 위치하고 있다. 대감굿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한 ‘조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경도의 ‘대감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 대감신은 하나의 신격을 지칭하기보다 가정의 평안과 복을 주는 복수의 신격을 지칭한다. 함경도에서는 이런 ‘대감’이 ‘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함경도에는 가신제(家神祭) 이외에 각 가정에서 주부가 개인적으로 거행하는 복제(伏祭), 칠성기도, 칠성제, 산신제(산제, 산기도), 용왕제, 발제, 용이, 대감제, 조상제, 서낭제, 국사당제(國師堂祭), 군웅제 등 개인제(個人祭)도 있었다.¹²⁾ 대감제를 올리는 대상은 자기 조상들과 가신(家神)들이었다. 홍원군의 경우, 지신제를 지낸 다음 가장이 자기 집의 마당에서 축문을 읽으며 조상에게 대감제를 지내며, 북청군의 경우, 3년에 한 번 우환이 있을 때 날을 받아 돼지를 잡아서 돌아가신 조상에게 대감제를 지냈다고 한다. 함경도의 대감제에서 돌아가신 조상들과 터주 등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¹³⁾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함경도에서는 ‘대감신’이 조상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1년 망목굿 자료에서 대감굿 거리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망자를 위해 저승길을 닦아주는 제차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격적으로 망자의 저승길을 닦기 전에 굿이 열리는 공간을 정확하고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터주신·성주신·지신 등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조상신도 함께 청해서 위무하는 제차로 대감굿 거리를 바라봐야할 것이다.

본고에서 이렇게 대감굿이 “전생 질”이 아닌 “인생 질”을 닦는 거리임

11)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10~11쪽.

12) 전경옥(1999), 앞의 책, 84쪽.

13) 전경옥(1999), 위의 책, 88~89쪽.

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감굿>의 서사에 접근함에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감굿>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아기장수전설>을 수용하여 그 핵심적인 화소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¹⁴⁾ ‘죽음’이 서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 <대감굿>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짐달언의 죽음은 “비극적 죽음 또는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으로 섬겨지는 무속적 현상과도 상통”¹⁵⁾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망목굿 안에서 대감굿 거리는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죽은 장수를 섬기는 제차로 해석되었다.¹⁶⁾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시각은 대감굿 거리가 망자의 원혼을 달래주는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¹⁷⁾ 위에서 길게 언급했듯이, 대감굿이 “전생 질”이 아닌 “인생 질”을 닦는 거리라는 점 그리고 대감신이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감굿>에서 그려내는 죽음은 망자보다는 조상과의 관련성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감굿>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그 제의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감굿>을 둘러싼 제의적 맥락을 <도량선비·청정각시>, <짐가제굿>, <오기풀이>, <산천굿>, <문굿>, <돈전풀이>와 같이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대감굿>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14) 권태효,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 양상』,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15) 권태효(2005), 위의 논문, 113쪽.

16) 권태효(2005), 위의 논문, 111쪽; 118~119쪽.

17) 권태효(2005), 위의 논문, 118쪽.

2. 온전치 못한 죽음과 復讎의 서사

<대감굿>에서 ‘죽음’은 2대에 걸쳐서 등장한다. 하나는 짐달언의 부친 짐미련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짐달언의 자결이다. 짐미련의 죽음은 <대감굿> 서사를 추동하는 결핍으로 작용하며, 이 결핍은 <대감굿>을 ‘부친의 죽음에 대한 아들의 복수(復讎)’라는 서사로 자리 매김 시킨다. ‘복수의 서사’는 서사적 문면에서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는 짐달언의 직접적인 발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짐달언은 짐미련이 전장에 나갔을 때 복중 태아로 있다가, 짐달언의 죽음 이후에 태어나는데, 태어난 후 첫 말이 “아버지 원수로 가겠읍니다”¹⁸⁾이기 때문이다.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짐달언은 4살과 15살 때 반복적으로 “아버지 원수를 갓겠소”¹⁹⁾라고 말할 뿐이다. 마치 짐달언은 복수를 위해 태어난 인물처럼 보이게까지 한다.

복수의 서사로 점철된 <대감굿>의 서사에서 최초상황을 ‘결핍’으로 인식시킨 것은 짐달언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짐달언이 어떻게 죽었는가 즉, 죽음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敗將軍”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짐미련은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짐미련은 국외에 나가 온전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서, 이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대감굿>은 공간마저 이분법적으로 구조화한다. 짐미련이 죽음을 맞이한 곳은 “저 나라”로 묘사되는 두만강 북쪽이며, 짐달언과 그의 모친이 있는 두만강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두만강을 기준으로 <대감굿>의 공간은 삶/죽음으로 분절되며, 그런 이분법적인 인식은 이곳/저곳을 기준으로 온전함/온전치 않음이라는 상태의 분류로, 또한 子/父라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의 분류로 확장

18)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2쪽.

19)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43쪽.

된다.²⁰⁾ ‘분류’는 범주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관계를 지시하기도 하는데,²¹⁾ <대감굿>에서는 ‘저곳-죽음-온전치 않음-父’라는 유표적 자질을 지닌 공간이 우위에 놓인다. 저곳은 이곳에, 죽음은 삶에, 온전치 않은 상태는 온전한 상태에, 父는 자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짐달언 모친의 발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짐달언의 모친은 부친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겠다는 짐달언을 만류하며, “너가 가면 시영사<先塋祭祀> 봉제사<奉祭祀>는 뉘기 찾아할거나 사당절 종무사 절<宗廟祀節>은 뉘기 찾아할가”²²⁾라고 말한다. 그런데 선영(先塋)을 관리하고 제사를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종통(宗統)을 이어받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부친의 온전치 못한 죽음을 수습하려는 아들 짐달언의 행위는 선영의 조상을 모시는 행위와 상충되지 않고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만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친의 발화는 오히려 짐달언의 노정을 재촉할 뿐이다. 짐달언이 해결하려는 것은 ‘저곳’에 있는 ‘온전치 않은’ ‘부친’의 ‘죽음’이며, 기존 환경을 고수하고자 하는 부동(不動)의 인물인 모친과는 다르게, 짐달언은 하나의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 인물로서 세계상의 불변적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변화 즉, 특별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²³⁾ 그 움직임은 공간의 분절을

20) 공간이 일정한 분절성을 갖고 있으면, ‘경계의 안쪽’ 대 ‘경계의 바깥쪽’, ‘(나를) 포함하는’ 대 ‘(나를) 제외하는’, ‘똑바른’ 대 ‘구부러진’ 등의 대립적 개념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유리 로트먼, 김수환 역, 『기호계』, 문화과지성사, 2008, 17~18쪽.)

21) 분류가 범주적일 뿐 아니라 위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했다. 브루스 링컨 지음,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245~246쪽. 링컨에 따르면 분류란 결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며, 분류된 것들 사이에서 확립되는 모종의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자연화하고 정당화한다고 언급했다.

22)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3쪽.

표상하는 두만강을 넘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아기장수적 면모를 보이는 짐달연²⁴⁾도 두만강을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죽음을 각오한 상태에서 천리용마를 타고 두만강을 뛰어넘었을 때 “뒷쪽이 물이 조금 문”²⁵⁾었다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만큼 분절된 공간을 횡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며, 두만강 너머의 공간이 단순히 지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두만강을 넘는 행위는 삶/죽음과 같은 경계선을 넘는 불가능에 가까운 힘겨운 도약인 셈이다. 죽음의 공간인 두만강 너머 “저 나라”에서는 짐달연이 본래 삶을 영위하던 곳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마귀 할미’가 등장해서 일종의 금기(禁忌)를 부여하는 사건도 “저 나라”로 넘어갔을 때 일어난다. 금기는 주로 대립적 자질로 구성된 두 영역의 분절이 해체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²⁶⁾

<대감굿>에서 금기는 ‘새파란 각시’가 살려달라고 다가왔을 때 도와주지 말고 용천점으로 “납다 처서 천지 따지 고지 뚝지 지내”²⁷⁾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새파란 각시’가 금기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경우는 함경도의 서사무가 <산천굿>에서도 발견된다. <산천굿>에서 붉은 선비는 절에 글

23) 유리 로트먼, 김수환 역(2008), 앞의 책, 21쪽 각주 10번 참고.

24) 권태효는 조속한 성장을 보인다는 점, 천리용마(千里龍馬)가 등장한다는 점, 곡식을 부려 군사로 만든다는 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을 들어, <대감굿>에 <아기장수전설>이 수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권태효(2005), 앞의 논문, 112~113쪽.)

25)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3쪽.

26) 예를 들어, 장장식은 금기설화에서 성(聖)과 속(俗)의 대립이 천(天)과 지(地)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금기의 발생지점을 성/속, 천/지와 같은 대립적 자질의 분절이 해체되는 지점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장장식,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1, 한국민속학회, 1985, 103~104쪽.)

27)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4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영산 각시와 부모가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갈 때 스승에게 네 가지 종류의 금기를 부여받는다. 그 중 하나가 천불 지불이 붙은 ‘새파란 각시’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는 금기였다. 붉은 선비는 금기를 어기게 되는데, 불에 붙은 새파란 각시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그녀를 도와주었던 행위가 오히려 대망신(大蟒神)인 새파란 각시의 승천을 방해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²⁸⁾ <대감굿>에서는 ‘새파란 각시’가 대망신이 아닌 꼬리 아홉 달린 “구무여우”로 나타나지만, ‘새파란 각시’를 도와주면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된다는 신화적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짐미련은 새파란 각시를 도와줘서 패장군이 되었고, 짐달언은 그 각시를 죽임으로써 금기를 위반하지 않아 짐미련과는 다른 운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기 화소를 통해 “저 나라”의 공간은 죽음과 삶 사이의 역설적인 인과 관계가 통용되는 곳임을 보여준다. 죽음이 삶을 부르고, 삶이 죽음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장면은 짐달언이 저 나라 군사들을 상대할 때도 발견된다. 부친의 원수인 저 나라 군사들을 제압한 것은 짐달언의 군사력도, 계략도 아니었다. 저 나라 군사들에게 ‘대추씨만 한’ 존재밖에 안 되는 짐달언은 용천점으로 자기 자신의 목을 침으로써 저 나라 군사들을 제압한다. 저 나라 군사들은 삶을 추구한 짐미련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음을 추구한 짐달언에게 냇이 빠진 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승리를 거둔 짐달언은 곧바로 부친의 시신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 또한 쉽지 않다. 온갖 가시들이 가득 찬 길 위에서 이빨로 낫과 꿩이를 삼고, 혀로 함자를 삼아 부친의 시신을 거두어 그 자리에서 감장(勘葬)을 한다. 짐달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부친의 신체를 다루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온전치 못한 죽음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 지난함을 알

28) 신희림(2014), 앞의 논문, 225쪽.

려주는 장면이다. 또한 짐달언이 부친의 시신을 거둔 것을 보고 “저 나라 군사들이 아버지 복수”²⁹⁾라고 말한 것을 보면, 복수의 서사가 지향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짐달언이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 것은 짐미련의 죽음 자체에 대한 복수라기보다 타지에서 죽은 짐미련의 시신을 제대로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복수였음을 알 수 있다. 온전치 못한 죽음은 이렇게 복수를 부르고, 짐달언이 저 나라에 버려져있던 짐미련의 시신을 수습함으로써 복수의 서사는 완성된다.

3. 죽음의 불순함과 희생

버려져 있는 부친의 시체를 잘 모신 후에 복수를 완성하면서 <대감굿>의 서사적 긴장감은 완화되지만, 갑자기 짐달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서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더욱이, 짐달언의 죽음은 모친의 자결까지 이어진다. 이를 비극적 죽음 또는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으로 섬겨지는 무속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³⁰⁾ ‘비극’이나 ‘억울함’만으로 짐달언의 ‘자결’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짐달언의 귀국 후 자결이라는 서사적 흐름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불순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서사를 추동하는 결핍 요인이 온전하지 못한 짐미련의 한 맺힌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대감굿>이 다루고 있는 죽음의 불순함은 더욱 강하게 서사 전반을 지배한다. 이런 불순에는 전염성이 있다. 죽음의 불순함은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

29)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5쪽.

30) 권태효(2005), 앞의 논문, 113쪽.

금 곧 그 싸움에 말려들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불순함은 폭력과의 접촉과 전염을 야기 시킨다.³¹⁾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보복이나 복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폭력 모방의 재현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³²⁾

<대감굿>에서 짐달언은 태어날 때부터 복수를 다짐한다. 부친의 죽음은 짐달언으로 하여금 삶/죽음의 공간을 분절하는 두만강을 넘게 하고 또 다른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폭력은 순환하는 것이다. 특히, 짐미련이나 짐달언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죽음의 공간이자 저 나라에 있는 전장(戰場)이다. 전장에서 죽음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이 불순함에서 피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³³⁾

짐달언은 두만강을 넘어 부친의 시신을 수습함으로써 폭력의 초석이 되었던 결핍 요인을 해소한다. 그러나 짐달언이 다시 두만강을 건너 돌아왔을 때 죽음과 폭력의 전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짐달언이 저 나라로 건너갈 때 “뒷쪽이 물이 조금 묻었”다고 표현되며,³⁴⁾ 또한 저 나라에서 다시 두만강을 건너올 때에도 “뒷쪽에 물이 조금 묻었”다고 언급된다.³⁵⁾ 강을 건너갔다 오는 과정에서 굳이 물이 묻었다는 장면을 반복해서 삽입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횡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횡단의 과정에서 짐달언이 저 나라에 있는 죽음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접촉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죽음과의 접촉은 죽음의 불순함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더 나아가 불순한 것이 가지고 있는 전염의 위험성에서 짐달언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31)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46~47쪽.

32)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1997), 위의 책, 74쪽.

33)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1997), 위의 책, 46~47쪽.

34)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3쪽.

35)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45쪽.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대감굿>에서 여러 대감신을 청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짐미련이나 짐달언과 같이 전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처럼 대감신 중에서도 ‘전장 대감’이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전장 대감이 다양한 대감신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감굿>에서는 “대감님 드실적에 인간도 선차 있고 임의 종신도 선차 있습니다”³⁶⁾라는 무당의 말처럼 대감신들 사이에 선차(先次)가 존재한다. 전장 대감은 이중 전염병을 옮기는 호구[胡鬼]나 별성(別星)과 같은 두신(痘神)과 함께 등장한다.

대감임만 내리소서 당상대감 별성대감 저 강남서 건너 올소 구술 닷말 연지 닷말 분 닷말 三五 十五 열닷말을 실고서 두지 豆滿江을 건너 올제 열기 앞은 떼어서 이앞선<葉船> 무어타고 산치렁에 올라서서 골골이 샷샷치 면면에 촌촌에 坊 〃 谷 〃 에 떠돌아 땡기며 아그 面相에 곧<花>을 도쳐 아그 面相에 잎<葉>을 도쳐 구술로 표정내고 연지로<臙脂>로 뺨을 써서 粉으로 성적<化粧>하던 상샷또 대감이 두읍소서

전장<戰爭>에 都元帥

전장에 마元帥

전장에 副元帥

날로진장

기와진장 유리진장

전장 대감 두읍소서

호기별성<胡鬼別神>대감임이 두읍소서³⁷⁾

36)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37쪽.

37) 지금섬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39~240쪽, 밑줄은 필자.

별성대감은 두만강 ‘너머’에서 강을 건너와 천연두를 전염시킨다. 전염병에 대한 상상력은 언제나 그 병의 근본이 ‘강남’이라고 부르는 저 너머에 있음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손님굿>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무속적 사유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신의 노정기(路程記)로 서사화 된다.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관장하는 신을 잘 모시고 ‘돌려보냄’으로써 전염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 그 서사의 지향점이다. <대감굿>에 등장하는 두신도 <손님굿>과 마찬가지로 죽음과도 같은 병의 불순함을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존재이며, “별성대감”과 “호기별성대감임” 사이에서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전장 대감 또한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장 대감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죽음이라는 불순함을 가져오는 존재인 셈이다.

따라서 짐달언이 복수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죽음의 불순함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 그 징조는 함께 전장을 다녀왔던 군사들이 두만강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탁탁 죽어”³⁸⁾가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너갈 때는 멀쩡하던 군사들이 건너올 때 이유 없이 죽어간다는 설정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죽음의 위력을 보여준다. 물론, 군사들은 “멀기 다래 오복수복”³⁹⁾을 먹고 살아나지만, 그런 죽음을 목도한 짐달언은 자결을 선택한다. 서사의 문면에서는 “아버지 원수르 갚았으니 내가 지 집이 가서 무엇 하리”⁴⁰⁾라는 짐달언의 발화를 첨부하지만, 맥락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짐달언의 자결은 오히려 죽음의 해로움을 온 몸으로 떠안는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 폭력을 구현하고 있는 신화적인 또는 신적인 인물

38)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45쪽.

39)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45쪽.

40)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위의 책, 246쪽.

의 가장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해로운 것으로부터 이로운 것으로의 변환이다.⁴¹⁾ 짐달언은 용천검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을 쳐서 죽는다. 저 나라에서 적군을 위협할 때 쓰던 방식 그대로이다. 원수를 갚기 위한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폭력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환시킨다. 해로운 폭력을 이로운 폭력으로 돌리는 것은 폭력의 원인을 단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 인물을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자발적인 죽음’은 그런 희생의 한 형태로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기희생의 신화이며,⁴²⁾ <대감굿>에서는 짐달언의 자결을 통해 그런 자기희생의 신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감굿>의 결핍으로 작용한 짐미련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짐달언의 죽음으로써 해소된다. 물론, 짐달언의 죽음은 이후 모친의 자결로 이어지기에 죽음의 전염성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천리용마가 집으로 가져간 짐달언의 머리를 보고 모친은 옷고름에 목을 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친의 자결 또한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죽음의 불순함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짐달언의 자결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칫, 짐달언이 두만강 이남으로 들어온 죽음의 불순함이 모친에게 전염되어 새로운 폭력의 초석이 생성될 수도 있는 지점에서 모친까지 자결하는 것으로 서사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해로운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남아있는 것은 일종의 짐미련의 해원(解冤)이며, 온전하게 전환된 이로운 죽음뿐이다.

41)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1997), 앞의 책, 378쪽.

42)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2007, 97쪽, 5장을 참고.

4. <대감굿>의 제의적 의미

저 나라에서 짐미련의 불순한 죽음과 접촉한 짐달언은 삶의 공간인 두 만강 이남에서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일종의 격리의 제의(rituals of separation)를 통해 짐달언은 이제 ‘배제’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다.⁴³⁾ 전염의 가능성을 지닌 짐달언을 배제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조직하고 재조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다.⁴⁴⁾ <대감굿>은 처음에는 짐미련의 죽음을, 나중에는 짐달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불순함을 이로운 성질의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렇다면 <대감굿>의 제의적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논의의 전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대감굿’ 거리가 “전생 질”이 아닌 “인생 질”을 닦는 거리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다시 말해 대감굿이 ‘조상’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망자의 저승길을 닦는 제의적 기능은 <대감굿>의 서사와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으로 망자의 저승길을 닦기 전에 굿판으로 청배한 터주신·성주신·지신과 함께 조상을 위무하는 제차에서 <대감굿>이 연행되기 때문이다. <대감굿>의 제의적 의미는 이런 연행적 층위와 2장과 3장에서 분석했던 서사적 층위를 견주어 봤을 때 온전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조상을 위하는 거리에서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군의 서사가 무가로 불리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권태효는 <대감굿>에 접근함에 있어 북방의 접경인 함경도라는 특수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군사적 충돌이 잦은 지역이기에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⁴⁵⁾ 그만큼 함경도 지

43) 더글라스는 ‘오염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격리의 제의(rituals of separatio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77쪽.)

44)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옮김(1997), 위의 책, 23쪽.

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조상 중에서 전장에서 원통하게 죽은 인물이 많았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조상을 위하는 ‘대감굿’ 거리에서 “전장에서 죽은 원혼을 위로하는 굿거리”⁴⁵⁾적 성격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짐미련은 선영에 모시지 못해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대상이다. 그 1차적인 원인은 전장에서 죽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감굿>은 그런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으로 제시함으로써, 문학적으로나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분절된 공간을 횡단하는 짐달언이라는 인물을 통해 마련한다. 짐미련은 짐달언에게 있어 부친이면서 동시에 선영에 모셔야 했던 조상이었다. <대감굿>을 무가로 부름으로써 실제로는 행하지 못했던 후손들의 의무 즉,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조상의 시신을 제의적 행위를 통해 수습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죽음의 불순함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를 온 몸으로 안고 희생될 존재가 필요하며, <대감굿>에서는 그 역할을 다시 짐달언에게 맡기면서 자기희생의 신화를 완성시킨다. 동시에 이는 전장 대감을 비롯해 전염의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대감신을 안전하게 굿곳에 모셔오는 서사적 장치이기도 하다. <대감굿>은 서사적으로는 복수담의 형식을 가지지만, 제의적으로는 불완전한 죽음을 온전한 방향으로 돌린 후 죽음의 불순함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연행적인 층위와 서사적인 층위로 구분해서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5) 권태효(2005), 앞의 논문, 119쪽.

46) 권태효(2005), 위의 논문, 119쪽.

[도식 1] <대감굿>의 서사적 층위와 연행적 층위

서사적 층위			연행적 층위		
죽음의 공간	짐미련(父)	저 나라	죽음의 공간	대감신 (조상)	신의 공간
죽음의 불순 → 제거	↓ ↑	복수	조상을 탈 없이 모심	↓ ↑	조상을 위무
삶의 공간	짐달언(子)	함경도	삶의 공간	후손	인간의 공간

[도식 1]에서 정리했듯이 짐달언의 복수담은 대감굿을 올려 조상을 위 무함으로써 아무 탈 없이 대감신을 모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의적 논리에 대한 서사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대감굿>과 같은 독특한 서사문학이 망목굿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함경도만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조상이 많다는 점과 대감신을 조상과 관련된 신으로 간주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함경도의 문화지리적 특성이 <대감굿>과 같은 독특한 문학적 전형을 낳은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신의 좌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감굿>의 서사가 종결된 후 각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독특한 인물이 갑자기 서사에 끼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언이가 달언이 아버지느 장군으 선상긔으르 장군으르 받기 법을내고
달언이 어머니느

안땅 나서 성앙 받기 법을 냈오 예-

앞 선산 우 병매<馬> 받 선상에 좌 병매 德物山 최열장군<崔瑩將軍>
을 받기 법을 내어 줍니다. 장군 대감을 다 올냈읍니다 대감신으 오셨다기⁴⁷⁾

짐달언과 짐미련은 장군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짐달언의 모친은 서낭이나 성황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추가적으로 최영장군이 좌정하는 장면이 발견된다. 최영장군은 개성 덕물산(德物山)에 좌정한 대감신으로, 주로 중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의 몸주로 모셔진다.⁴⁸⁾ 최영장군신은 온전치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짐미련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공중을 향해 자기 목을 베어도 다시 달라붙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 나라 군사들 앞에서 위용을 보이던 짐달언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변방에서 외적을 물리쳤던 장군으로서의 위용은 전장에서 활약한 짐미련-짐달언 부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감굿>에서는 왜 서사의 내용과 관계없는 최영장군을 갑자기 마지막에 대감신으로 모셨던 것일까? 자료가 충분치 않아 추정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함경도의 <대감굿>에서 신으로 모시는 짐미련, 짐달언 그리고 짐달언의 모친은 여타 지역의 대감신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1965년 제출된 임석재·장주근의 조사까지도 <대감굿>은 ‘기타’의 무가에서 다루어졌을 뿐, 망목굿에서 부르는 무가가 아니었다. <대감굿>이 망목굿이라는 대규모의 의례로 편입되면서 대감신의 위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짐미련-짐달언 부자와 유사한 신격을 가지면서도 사람들에게 장군대감으로 잘 알려진 최영장군을 마지막에 삽입시킴으로써 신의 위력을 보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영장군신과 관계없이 <대감굿>은 본격적인 망자천도를 하기

47) 지금섭 구송 <대감굿>, 임석재·장주근(1965), 앞의 책, 246~247쪽.

48) 이하 최영장군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했다. 홍태한, 『최영장군당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편』(국립민속박물관 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497&cid=50223&categoryId=51051>

전에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조상을 위로하고 대감신으로 모시기 위한 무가라고 할 수 있다. 연행 층위와 서사 층위가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 <대감굿>은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죽음의 불순함을 제거한 상태로 장군대감을 모실 수 있는 신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본고는 함경도의 서사무가 <대감굿>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서사에 내재된 죽음의 두 층위를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제의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감굿>을 연행하는 ‘대감굿’ 거리가 망자천도와 관련된 제차가 아니라, 망자의 저승길을 닦기 전에 굿판으로 청배한 터주신·성주신·지신과 함께 조상을 위무하는 제차임을 강조하고, 이런 제의적 맥락 속에서 <대감굿>의 서사를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주목한 점은 짐미련의 죽음이었다. 짐미련은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인물로, 온전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상태이다. 두만강을 기준으로 <대감굿>의 공간은 이곳/저곳으로, 더 나아가 삶/죽음, 온전함/온전치 않음, 子/父로 분절되어 있으며,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인물로 짐달언이 선택된다. 짐달언은 분절된 공간의 경계를 횡단하여 짐미련의 시신을 수습함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완수함과 동시에, 온전치 못한 죽음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린다.

문제는 짐미련의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짐달언에게 죽음의 불순함이 전염되었다는 점이다. 짐달언의 자결은 이런 맥락을 먼저 살펴봤을 때 이해 가능한 영역에 있다. 짐달언은 스스로 죽음으로써 죽음의 해로움을 온

몸으로 떠안고 사라진다.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희생의 한 형태로 자신을 죽음의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자기희생의 신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복수의 순환 고리를 끊고 죽음의 불순함을 제거한 짐달언의 행위를 통해 짐미련에 대한 해원 또한 탈 없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대감굿>은 처음에는 짐미련의 죽음을, 나중에는 짐달언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해로움을 이로움으로 전환시켰다.

<대감굿>의 서사적 층위와 연행적 층위를 병치해서 살펴보면, 짐달언의 복수담은 대감굿을 올려 조상을 위무함으로써 아무 탈 없이 대감신을 모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의적 논리를 서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조상이 많다는 점, 대감신을 조상과 관련된 신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함경도의 문화지리적 특성이 <대감굿>과 같은 독특한 문학적 전형을 낳은 것이다. <대감굿>은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 전에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조상을 위로하고 대감신으로 모시기 위한 무가로서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 <대감굿>,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234~249쪽.
- 권태호,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 양상』,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99~120쪽.
-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80, 1~414쪽.
- 북청군지 편찬위원회, 『북청군지(개정증보판)』,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94, 1~1209쪽.
- 신호림, 『산천굿 무가사설의 구성적 특징과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무속학』 28, 한국무속학회, 2014, 215~246쪽.
- 신호림,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43, 우리문학회, 2014, 159~190쪽.
-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굿-』(한국의 굿 8), 열화당, 1985, 70~90쪽.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2(함경남·북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1~319쪽.
- 장장식,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1, 한국민속학회, 1985, 99~114쪽.
- 전경옥,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287쪽.
- 홍태환, 『최영장군당신화』,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편』(국립민속박물관 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497&cid=50223&categoryId=51051>
-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1~516쪽.
-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2007, 1~350쪽.
-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1~164쪽.
- 브루스 링컨 지음, 김운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1~567쪽.
- 유리 로트먼 지음, 김수환 역, 『기호계』, 문학과지성사, 2008, 1~391쪽.

ABSTRACT

A Study on the Two Layers of Death and its Ritual Meaning in
a Shamanistic Myth of Hamgyeong-do Province “Degam-gut”

Shin, Ho-r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wo layers of death and its ritual meaning of “Degam-gut”, the shamanistic myth in Hamgyeong-do province. “Degam-gut” is performed not for the dead but for an ancestor in order to lay his(or her) spirit to rest. It is possible to find out the ritual meaning of “Degam-gut” by juxtaposing the narrative layer with performing layer.

In “Degam-gut”, a ‘lack’ which leads the whole narrative is described of incomplete death of Jim Miryeon who is a defeated general died in the battlefield. The spatial structure is composed of two opposite parts like ‘inside of Duman river/over the Duman river’, ‘life/death’, ‘complete/incomplete’, ‘son/father’ and so on. Jim Daleon, a son of Jim Miryeon crosses the board of segmented space for his ‘revenge’. He finally succeeds to hold a funeral of his father. However, the problem is about the contagion of death which engenders a vicious circle of the violence. Jim Daleon’s suicide should be interpreted by this. He becomes a scapegoat burdening whole possibilities of harmful violence so that he consummates the myth of self-sacrifice in order to vent his father’s spite.

When we juxtapose the narrative layer with performing layer of “Degam-gut”, the narrative of Jim Daleon’s revenge is a metaphor of the process that takes a good fortune of god of Degam without any harm by mourning an ancestor. A cultural geographical feature of Hamgyeong-do province could be summarized by two. One is there are usually lots of ancestors who cannot come back from the battlefield, and another is the god of Degam is regarded as an ancestor. Though “Dagam-gut” is not for the dead, it has its own ritual function, mourning an ancestor who did

not die normally and bringing a god of Dagam without any danger into the ritual space of Mangmut-gut.

Key Words Degam-gut, Hamgyeong-do, shamanistic myth, ancestor, death, contagion, sacrifice, Mangmuk-gut

논문투고일 : 2019.01.05

심사완료일 : 2019.02.12

게재확정일 : 2019.02.19